풀무여행 **(2011**년 풀무학교 전공부 종강예배**)**

풀무학교는 농업학교이고 기독교학교(무교회주의)이다. 10월에는 추수를 하고 11월에는 김치를 담군다. 12월에는 종강을 하고 봄이 될 때까지 방학에 들어간다. 2011년 12월 10일 1층 강의실에서 종강예배가 있었다. 강의실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풀무교정에는 소박한 눈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찬송가 524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합창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는 헤어져야 하고,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는 동서고금의 진리를 확인이라도 하듯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자는 위로를 서로 나눴다. 그리고는 성경을 같이 읽었다. 창세기 2장 15절이었다. " The Lord God took them(Adam & Eve) and put them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it and take care of it." 농업학교라 그런지 창세기 내러티브도 '농업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 같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정원에서 다른 짓을 했다기보다는 그저 농사를 지으며 정원을 보살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 이어 박완 선생님이 기도를 했다. 박완 선생님은 독실한 기독교인답게 절실하게 기도했다. 흉중 깊이 우러나오는 신앙의 소리가 드문드문 교실의 적막을 깼고 우리 마음 속으로 깊게 깊게 들어왔다.

뒤이어 홍순명 선생님 말씀이 있었다. 풀무학교가 농업학교이지만 생태농사를 짓는 학교이며 마을학교라 그런지 홍선생님은 학교 내부 이야기보다는 마을 이야기를 많이 했다. (요약은 붙임1). 그 후 우리는 방학 때 어떻게 생활을 할 지 계획을 서로 나누었다. "우선은 집에 갔다가 **를 할거에요, 2월에 다시 만나요." 공통적으로 나온 이 문장이 나눔의 문법인 듯 했다. 물론 겨울동안 할 일은 많았다.

- 이사를 할 예정이다. 짐 정리도 하고 좀 쉬면서 살겠다. 정동희 선생님 미술수업도 듣고 그 동안 적었던 농사 일지도 정리하겠다
- 쉬면서 농사 지을 땅을 찾아보겠다
- 수녀원에 있을 거다
- 고양이를 돌보겠다
- 한량으로 지내겠다
- 친구 병문안을 가겠다
- 제주도 농장에 가서 일을 하겠다
- 기능사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농기계 교육 열심히 받겠다
- 정동희 선생님의 미술 수업을 듣겠다. 생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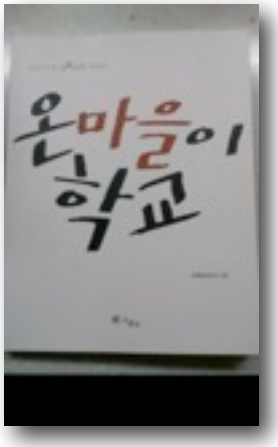
- 목요일부터는 농업연구실에서 선배들과 같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겠다. 정동희 선생님 미술수업도 듣고 주말에는 생협 아르바이트도 하겠다
- 오도 선생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 아버지 백두대간 걷기에 합류할지도 모르겠다
- 서울에 올라가 친구들,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고 다시 내려올거다. 겨울 내내 홍동 집에서 혼자 지내겠다

지구 상에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하나 싶은 걱정보다는 서로가 헤어지기 아쉬워 교가를 크게 부르기도 했다. 누군가 교실 뒤에 있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고 잠시 후 반주가 흘러나왔다. 칠판에 쓰여진 교가를 우리는 크게 합창했다. "풀무에 창을 쳐 보습을 만들고, 풀무에 칼을 쳐 낫을 만들자. 그 보습으로 대지를 갈고, 그 낫으로 곡식을 거두자. 풀무 농업마을 대학, 마을에 진리를 넘치게 하라." 창과 칼 대신 보습과 낫을 만들어 농사를 짓자는 것은 평화를 짓자는 것이다. 평화를 짓는 농부들은 방학을 맞아 잠시 쉬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른 아침부터 내린 눈은 언덕을 내려가는 그들을 따뜻하게 배웅했다. (2011.12.10)

<홍순명 선생님 말씀 요약**>**

올 한 해 우리 지역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마을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풀무학교가 마을학교를 표방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는 마을사람이 오기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을도서관에 마을사람들이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도 좋은 도서관이지만, 우리부터 먼저 드나들며 좋은 마을도서관을 만듭시다.
(2) 전에는 관청에서 주민을 들볶았는데 요즘은 거꾸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사람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관청에서 간섭하네요. 올 해는 마을활력소가 생겼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센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도 필요하고 관청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은 잘 써야 좋고 잘못쓰면 액운입니다. 관청의 지원은 철저하게 주민을 위해 써야 합니다. 마을활력소에서 마을주민 프로그램을 더 많이 만들어 지기를 희망합니다.
(3) 갓골 출판사에서 "온 마을이 학교" 책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내용이 실렸습니다. 저는 참 감명깊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밭인데, 그곳이 교육장, 연구실, 예술작품, 예배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책은 이런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책을 내신 교육농연구소의 박형일 선생님과 마을공동체 문화연구소의 최은미 선생님 두 분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시다시피 두 분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교사를 하면 작은 중소기업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두 분은 그것을 포기하고 농촌에서 새로운 가치를 열고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4) 순환센터가 생겼습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순환농업입니다. 농업의 다각적 순환을 위해서는 순환센터가 필요합니다.
(5) 정농회가 다시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사적 의미가 큰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농회 농부들은 이 땅에서 초기부터 유기농업을 했고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정신과 협업의 정신을 우리는 그 분들에게 배웠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정농회가 이제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농회 농부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정농회를 이어가야 할까요? 사람들은 우리 풀무 전공부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합니다. 정농회가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써 의미 있는 발돋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6) 얼마 전에 봉하에 다녀왔습니다. 영부인이 김치를 보내줘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성군에 농정기획단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관청에서 농사를 지도했습니다. 잘 모르고 그랬던 겁니다. 실상은 농민이 스스로 연구하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번에 생긴 농정기획단이 비록 군청 조직이긴 하지만, 농민과 같이 잘 협업하기를 바랍니다.
(7) 얼마 전 마을행사가 갔더니 우리 마을 연구소 12개가 발표를 했습니다. 마을에 12개나 되는 연구소가 있고 발표까지 했으니 거창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연구소라고 하면 소장이 있고 연구원들이 있고,,,, 그래야 하는데 모두 1인 연구소였습니다. 갓골사진연구소는 사진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하는데 그게 연구소더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씩 연구소를 해야 합니다. 무슨 조직이 있는 연구소가 아니라 자기 혼자 하는 연구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연구소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도모한다면 창의력이 생겨 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 나온 <온 마을이 학교>라는 책도 1인 연구소인 교육농연구소에 나왔습니다. 홍동뻐꾸기도 우리 전공부 학생 혼자 하잖아요? 그런데 홍동뻐꾸기가 있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합창단을 만들어서 얼마나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혼자 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즐겁게 생활합니다.

홍순명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 했다. "우리에게는 농적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흙을 사랑하고 흙에 충실해야 합니다. 개인과 지역이 자급을 해야 합니다. 농적 마음은 우리의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동무되어 함께 농적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농업에 야망을 품고 열정적으로 살아갑시다."